

# 학교 주변 개발사업 전문 심의 강화

### 전북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 재구성... 학생 학습권·안전 보호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주변 개발사업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교육환경보호위)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학교 인근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소음과 진동, 통학 안전, 일조권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사전 검토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설립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기구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주변 개발사업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한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고 소음 저감과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와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공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교육환경 보호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보호제도 운영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임영근 문체체육관광과장은 "교육환경 보호는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 영역"이라며 "학생들이 공사 소음이나 안전사고 걱정 없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대학교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6년 박물관 국고지원 사업에서 총 3개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주대 박물관 내부.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 올 문체부 인력지원 3개 부문 선정

전주대 박물관, 교육사 13년 연속  
올해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 이어가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6년 박물관 국고지원 사업에서 총 3개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부문은 △사업 및 사립대학박물관 전문인력(학예사, 교육사) 지원사업 2개 분야와 △사업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 학예인력 지원사업이다. 전주대 박물관은 이번 선정으로 각 사업의 연속 운영을 이어가게 됐다. 전문인력(교육사) 지원사업은 13년 연속(2014년~), 전문인력(학예사) 지원사업은 11년 연속(2016년~) 선정되었으며, 예비 학예인력 지원사업은 6년 연속(2021년~) 선정되어 운영의 안정성을 나타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박물관의 운영 여건 및 현황, 실적 평가, 등록요건 유지, 사업계획, 인력활용 계획 등 여러 평가를 통해 우수 박물관을 선발한다. 전주대 박물관은 2025년 평가에서도 선정된 3개 부문 모두 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현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경험 제공을 위해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인력을 활용해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박현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경험 제공을 위해 매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인력을 활용해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올해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공개 선발

### 전북교육청, 유치원 5명·초등 25명·중등 29명... 6월 19일 최종합격자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59명을 공개 선발한다. 전북교육청은 수업 전문성과 현장 중심 인재 발굴을 위해 '2026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총 59명으로, 유치원 5명, 초등 25명, 중등 29명이다. 특히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응시 자격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3월 1일 기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정규교원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 유치원과 초·중학교 교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국·공·사립고 및 특수학교 교원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접수하면 된다. 전형은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1차 소양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역량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전문성과 현장성,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6월 19일 발표된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공개전형을 통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 역량 있는 교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선발하겠다"며 "수업 중심 문화를 이끌고 협력적 조직문화를 실현해 온 교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취학관리 전담기구 회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취학 아동의 적기 취학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일 창조미래 회의실에서 취학관리 전담기구 회의를 열고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취학관리 방안과 미취학 아동의 취학 독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무교육 대상 아동의 취학 현황을 점검하고 미취학 아동이 적기에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다른 시·도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기 아동의 취학 누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 관리 방안, 기관 간 취학관리 개선사항 공유, 교육청과 학교, 외부기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찰청 등과의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에는 각각 취학관리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전담 기구는 교직원과 시·도차관체 직원, 아동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오상근 기자

### 유치원 교사연수회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의 자발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 문화 조성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일 전주 치명자 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6학년도 유치원 교사연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연수회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수회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자연사랑 환경사랑, 인성·인권교육, 5세 이음교육, 유아 책 놀이 비대면 교육활동, 자유주제 등 7개 영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공동 연구와 실천 활동을 진행한다. /오상근 기자

## 위기학생 조기 발견·적기 개입 역량 강화

### 전북교육청, 학업중단

### 예방 안전망 강화 나서

### 담당교원 대상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기 개입 역량 강화를 통해 학업중단 예방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일과 3일 전주 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담당교사,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 7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대응 역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예방 중심, 조기 발견, 즉각 개입으로 이어지는 현장 실행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정책 전달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연수로 운영됐다. 주요 내용은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 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일과 3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담당교사,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 7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학업중단 예방 업무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제 △타 시·도 우수 운영 사례 △학업 중단수리제 운영 전 과정(계획 수립부터 나이스 처리까지)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사례 공유와 질의응답을 강화해 학교 간 경험을 확산하고 협력 기반을 넓히는 데도 중점을 뒀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위탁교육기관 운영과 대안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업

중단수리제 운영 등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올해는 중·고등학교 60개교를 대상으로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을 통해 위기학생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교육청, 학교급식 공감·소통의 장 두 번째 시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 관리자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일 전주 치명자 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유치원장과 초등학교장 28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교급식 공감·소통의 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급식 공감·소통의 장 두 번째 시간으로,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역할과 책임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호윤 교장이 '학교급식의 리더십' 학교급식의 질을 바꾼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학교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경영의 관점에서 풀어나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2026년 학교급식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급식 운영 과정에서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실질적인 정책 소통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상근 기자

##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 역량 강화

### 전북교육청, 국어·수학·영어 교사 60여명 대상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실습 중심 연수를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일 전주미래대학교에서 '2026년 수능체제 평가문항 개발 역량강화 연수(1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수준 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의 문항 제작과 검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국어·수학·영어 교사 60여 명이 참여했다. 문항 제작 이론과 출제 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문항 작성부터 분석, 수정, 검토까지 이어지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 교사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오상근 기자

특히 기출문제 분석과 정답률 추정 등 실제 수능 출제 과정과 유사한 방식의 실습을 통해 교사가 평가 문항 개발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한 차례 더 2기 연수를 실시해 참여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전국 단위 평가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학교 수업과 평가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정과장은 "수능체제에 대한 이해와 문항 개발 역량은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곧 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 학력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교사가 만드는 초등 학생평가 문항

### 전북교육청, 초등 교원 250여명 대상 실행연수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 교원들의 학생평가 문항 개발과 검토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 중심 연수를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일과 4일 창조미래 시청각실과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에서 도내 초등 교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평가 문항개발 실행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실제로 문항을 만들고 검토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행 중심 연수로 마련됐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취기준 기반 평가문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연수는 △문항개발 이해 △성취기준 분석 및 문항개발 실습 △문항 검토 및 피드백 △현장 적용 결과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일 진행된 1차 연수에서는 '문항개

발의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사례 중심 강의가 이뤄졌으며, 4일 열리는 2차 연수에서는 학년·교과별 문항 유형에 따른 성취기준 기반 문항개발 실습과 상호 검토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학생평가 분야 권위자인 김선 교수가 맡아 현장 교사들의 이해를 돕는다.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은 이후 문항 지원과 연계해 성취기준 기반 평가 문항 개발과 검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실행연수는 교사의 문항개발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교원들의 평가 전문성을 높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성취기준 기반 평가문항을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